



양계인 61%, 미래 어두울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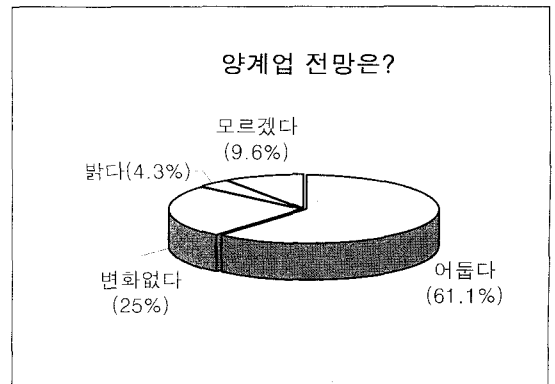
- 육계인들 의무자조금 75% 실시 희망 -

◇ 정리 / 김동진 차장/기자
(dj@poultry.or.kr)

본고는 지난 2월 26일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본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던 대의원 및 전국 양계인들을 대상으로 직·간접(전화 및 팩스 등)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한 '2003년도 양계 당면현안 및 양계업 전망'에 대한 설문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본 설문에 참여한 농가는 총 222명으로 채란분야(108명, 48.6%)와 육계분야(114명, 51.4%)로 각각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이중 채란인이 100명(45%), 육계인이 89명(40.1%), 토종닭 사육농가가 17명(7.6%), 종계인이 11명(4.9%), 기타가 5명(2.4%)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며, 큰 변화 없을 것이다(25%), 밝을 것이다(4.3%), 모르겠다(9.6%)로 각각 응답해 상당수의 양계인들이 앞으로의 양계업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였다. 이 같은 반응은 최근 계속되는 양계업의 불황을 대변한 것으로 보이며, 미래를 밝게 보는 양계인의 대부분은 육계인으로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이었다.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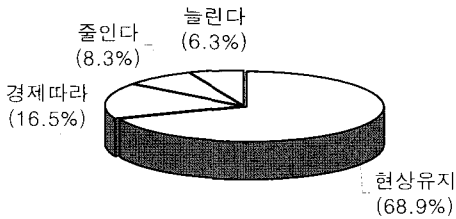
1. 양계업에 대한 미래 기대는?

양계인들은 과연 앞으로의 양계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 양계업에 대한 미래 기대를 묻는 질문에 전체 222명중 216명이 응답하였는데, 이중 미래가 어둡다라고 답변한 양계인이 133명(61.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2. 농장 사육규모 확대계획은?

앞으로 농장 경영을 함에 있어 사육규모를 늘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현상태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68.9%(142명)로 가장

농장 사육규모 확대 계획은?



많았고, 줄일 것이다(8.3%), 늘릴 것이다(6.3%), 경제사정에 따라(16.5%)로 각각 답변하였는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줄일 것이라는 답변(8.3%)에 비해 늘리거나 상황에 따라 확대계획을 구상하는 농가가 22.8%를 보인것은 미래가 어둡다고 보면서도 경기회복은 물론 양계산물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심리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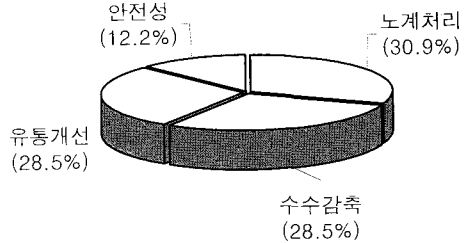
채란분야

채란분야의 설문에 참여한 농가는 총 108명으로 순수 채란인들은 이중 92.5%(100명)를 차지하였으며, 종계(3.7%), 중추(1.9%), 기타(1.9%)로 각각 나타났다. 채란인들의 사육규모를 보면 2~5만수가 43.6%로 가장 많았고 2만수 미만인 35.1%, 5~10만수인 19.1%, 10만수 이상이 2.1%로 각각 나타났다.

1. 채란업의 선결과제

채란업의 선결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노계처리 문제가 30.9%(3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육수수 감축이 28.5%, 유통개선이

채란업 선결과제는



28.5%, 계란의 안전성이 12.2% 순으로 나타나 노계처리가 채란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육수수 감축과 유통개선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꼽고 있었으나 소비자들을 위한 계란의 안전성 문제는 다소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계처리 방법

노계처리의 최선의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사료화(47.2%), 육가공원료육 사용(39.6%), 소각 또는 매몰(9.4%), 기타(3.8%) 순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노계처리의 가장 중요한 방법을 사료화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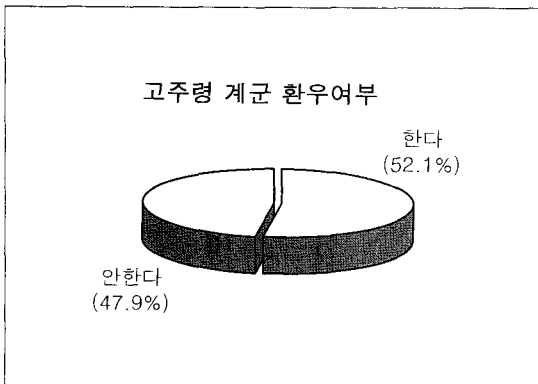
3. 과잉생산의 원인

장기적인 불황이 계속되면서 과잉생산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입식량 증가가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부진이 30.1%, 강제환우가 26.5%로 나타났고 가공관 수요부진은 1.8%로 미미했다. 따라서 질병감소, 육종 발달 등으로 인해 종계의 사육수수가 연간 평균 50만수 이하를 유지해야 함에도 최근 2년여 동안 이보다 많은 수수가 들어가면서 불황

을 자초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과 노계처리 부진에 따른 강제환우도 과잉생산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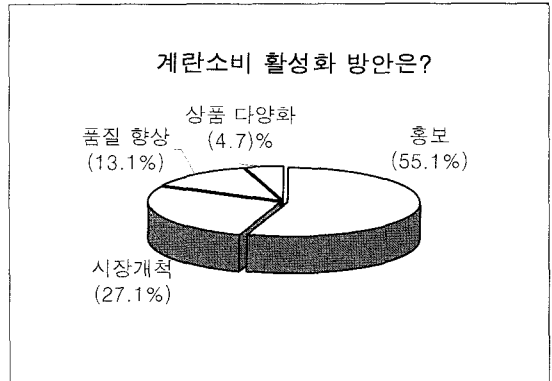
4. 강제환우 여부

과잉생산의 요인중 강제환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 연계하여 경제주령(78주령) 이후 강제환우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에 응한 채란인 98명중 52.1%(51명)가 강제환우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47.9%(47명)는 강제환우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고주령임에도 불구하고 50%가 넘는 농가에서 환우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계도태의 어려움 등이 지속되면서 환우가담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계란소비 활성화 방안

경기침체에 따른 계란소비 감소가 이어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계란소비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5.1%가 계란 우수성 홍보를 꼽았으며, 새로운 시장개척이 27.1%, 품질향상이 13.1%,



상품의 다양화가 4.7%로 나타나 콜레스테롤 문제 등 계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는 등 소비촉진에 대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의무자조금 조성시 할일

지난해 말 입법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자조활동자금법(의무자조금)과 관련하여 의무 자조금이 조성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질문에는 소비촉진이 54.6%로 가장 많았으며, 수급조절이 27.8%, 식품개발이 15.7%, 생산성 향상 방안 연구가 1.9%로 각각 나타나 자조금 사업이 활성화 되면 우선 소비촉진 등 홍보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7. 생산비 절감에 걸림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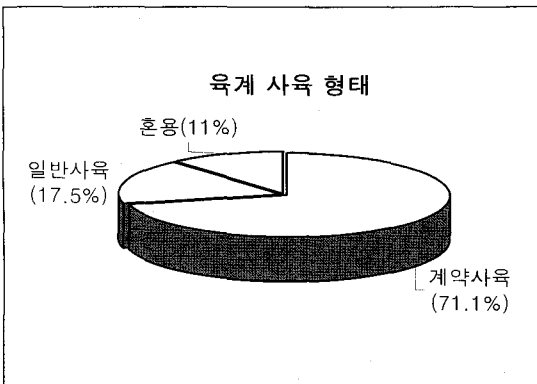
생산비 절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질병발생이 5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이 생산규모(31.8%), 병아리 품질(8.4%), 사양관리(6.5%)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생산성 향상에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육계분야

육계분야의 설문에 참여한 농가는 총 114명으로 육계인들은 이중 78.1%(89명)를 차지하였으며, 종계인(6.1%), 토종닭 사육농가가(14.9%), 기타(0.9%)로 각각 나타났다. 육계인들의 사육규모를 보면 2~5만수가 62.2%로 가장 많았고 5~10만수가 26.8%, 2만수 미만 이 9.77%, 10만수 이상이 1.2%로 각각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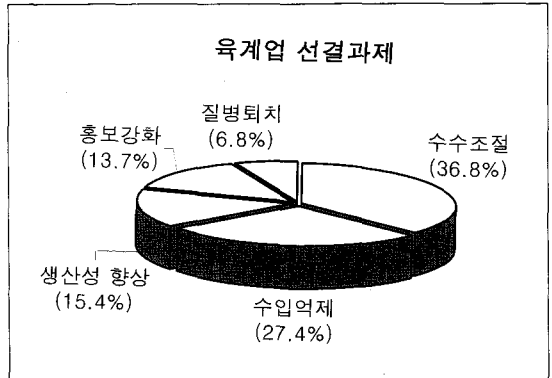
1. 계약사육 비율

육계업의 경우 사육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80명중 계약사육이 71.1%(57명), 일반사육이 17.5%, 혼용이 11.3%로 나타나 계열화 사업의 확대에 따른 계약사육 비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 육계업의 선결과제

육계업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는 생산수수 조절이 36.8%로 가장 높았으며, 수입억제가 27.4%, 생산성 향상이 15.4%, 소비홍보 강화가 13.7%, 질병퇴치가 6.8%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답변은 지난달 중



순 kg당 1,500원까지 일시적인 닭값 상승을 보인 적은 있으나 거의 10여개월 동안 육계가 격이 낮게 유지되면서 생산수수 감축만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수입증가에 따른 수입억제가 국내 육계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적되었다.

3. 육계산업 불황극복 방안

지난해 6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불황을 탈피하기 위해 육계산업 불황극복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육수수 감축이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억제(28.7%), 소비촉진(23.5%), 수출확대(10.4%) 순으로 나타나 육계업의 선결과제와 같은 맥락에서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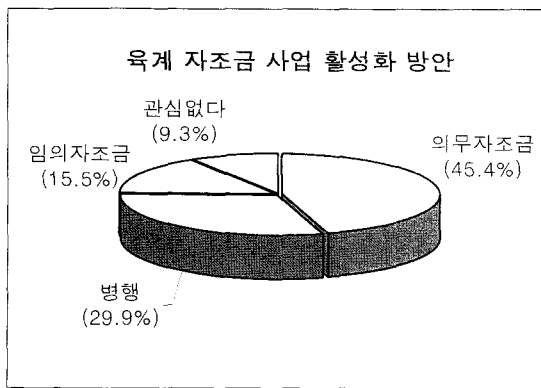
4. 과잉생산 원인

육계관련인들이 생각하는 과잉생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계열화 사업 확대(44.6%), 수입증가(30.7%), 소비부진(24.8%)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계열화 사업에 막대한 정부자금이 투자되면서 신규 계약농가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한 것이 주요인 이었던 것으로 풀이되며,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잠식도 과잉생

산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5. 자조금 사업 활성화 방안

최근 자조활동자금법(의무자조금)이 법제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간의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닭고기 자조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의무자조금 정착이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임의자조금 제도 유지가 15.5%로 나타났으며, 의무와 임의자조금 병행이 29.9%, 관심없다가 9.3%를 보였다. 이는 수년동안 본회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에서 노력하여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임의자조금 제도의 정착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온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의무와 임의자조금 병행도 30%로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였다.



6. 육계표준계약서 사용

육계표준계약서가 지난해 말에 공식적으로 공표된 이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육계표준사육계약서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순수 계약사육을 하는 농가들(61명)의 반응은 계열업체

의 무관심이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현실성 부족(17.9%), 현재 계약서에 만족(21.4%), 홍보부족(10.7%)으로 나타나 계열업체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현재 계약서에 만족하거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39.3%로 나타나 보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7. 닭고기 수출의 걸림들

닭고기 수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시범 수출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닭고기 수출에 대한 걸림들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격이 33.6%로 가장 높았으며, 질병이 29.1%, 품질이 19.1%, 사육환경이 18.2%로 나타나 가격 뿐만 아니라 질병, 품질, 사육환경 등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에 대한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 생산비 절감에 걸림들

육계분야에서 생산비 절감에 걸림들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병아리 및 사료 품질이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질병발생이 24.8%, 계사여건 열악이 6.9%, 사양관리 미비가 3.9%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육계인들은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와 병아리가 실질적으로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종계장 관리부실과 경기불황에 따른 사료비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양계**